왠지 모르게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테마곡 문리버(Moon River)를 흥얼거리게 되는 이곳은,

서귀포의 감귤마을 남원읍에 위치한 정통 스위스 샬레 에요.

핀란드에서 가져온 홍송으로 지은 통나무 집인 만큼 객실에 머물다 보면 소나무의 피톤치트 향을

은은하게 맡을 수 있답니다. 객실 창 밖으로는 한라산과 제주도 앞바다를, 숙소 뒤로는 백이악 오름의 다양한 새소리를 경험해보세요. 힘들고 바쁘기만 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쉬고 즐길 수 있는 제주도의 힐링 쉼터가 될 거에요.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이름에 맞게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싶었어요. 핀란드에서 온 귀한 건물재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힘든 독특한 외관으로 숙소를 만들었답니다. 객실 밖 발코니에 나오면 제주의 바람과 함께 새로운 아침이 시작 될 거예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31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154번길 12

우리 숙소의 특별한 점

• 핀란드에서 온 소나무로 만든 스위스 샬레 통나무집

• 창 밖으로 보이는 한란산과 제주 바다 풍경

• 제주스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넓게 펼쳐진 밀감밭

이런 여행객에게 추천

• 통나무로 만든 스위스 샬레를 경험하고 싶은 분

• 편안하고 조용한 휴식을 즐기고 싶은 분

• 숙소에서 바다와 산의 풍경, 새소리를 즐기고 싶은 분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라운지 건물에 마련된 세탁기와 건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